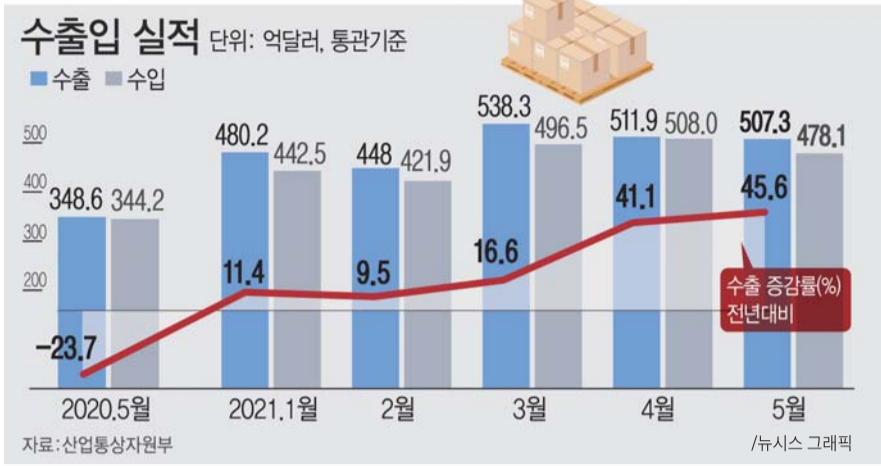


# “코로나 기세 꺾였다”... 5월 수출 32년만에 최대폭 증가

산업부, 지난달 수출 507.3억 달러 두달연속 40%대, 7개월째 상승세 1~5월 누적 수출액 ‘역대 최고’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지난달 수출 상승폭이 32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사상 처음으로 두 달 연속 40%대 수출 증가율을 보였고, 올해 1~5월 누적 수출액도 역대 최고다. 일평균 수출액도 2018년 이후 처음 24억달러를 넘겨 지난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기저효과와 무관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1년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07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달 수출 상승폭은 1988년 8월 이후 32년 만에 최대다. 또 3년 2개월 만에 7개월 연속 상승했다. 4월(41.2%)과 5월(45.6%) 두 달 연속 40% 성장한 건 역사상 처음이다.

수출액은 역대 5월 중 1위로 3개월 연속 500억달러를 돌파했다. 특히 5월 조업일은 21일로 직전 두 달(3,4월 각 24일) 대비 조업일이 3일 부족했음에도 수

출 호조세를 이어나갔다.

일평균 수출액은 2018년 이후 처음으로 24억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역대 5월 중 1위이자 역대 모든 달과 비교 시에도 3위에 해당한다.

올해 1~5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2484억달러로 역대 1위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15대 수출 주력품목 중 14개가 증가했고, 이 중 12개는 두 자릿수 이상 증가했다. 반도체는 11개월 연속 증가하며 2018년 이후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돌파했다. 자동차는 93.7% 증가하며 14년 8개월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최근 5개월 연속 두 자리 증가를 기록 중이다.

석유화학은 94.9% 증가했고 수출액은 지난 3,4월에 이은 역대 3위다. 석유제품 역시 유가와 수요 회복 등으로 15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대표적인 신성장 품목인 바이오헬스와 이차전지는 각각 21개월, 9개월 연속 증가하며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두 품목 모두 역대 5월 수출액 최고치를 경신했다.

유일하게 수출이 감소한 선박은 대부분 2~3년 전 수주 실적으로 올해 수출 흐름과는 관련이 적다.

수출 지역별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2개월 연속 9대 지역으로의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 주요 수출지역인 대(對)중국·미국·유럽연합·아세안 수출액이 역대 5월 중 1~2위다.

5월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37.9% 증가한 478억1000만달러로 6개월 연속 증가했다. 국내 경기 회복에 따른 생산시설 가동을 상승가 투자 및 소비 심리 개선으로 1차산품·중간재·소비재 수입이 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무역수지는 29억3000억달러로 13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수출 호조가 앞으로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WTO 발표에 따르면 주요 10대국의 2021년 1분기 수출이 모두 증가세로 전환했다. 분기 수출액이 모두 플러스인 것은 코로나19 이후 처음이다.

또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작년과는 대조적으로 대부분 품목들이 호조세로 전환해 전 품목이 균형 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요국의 투자와 생산활동 재개를 보여주는 중간재 수출이 작년 5

월 -43.6%에서 올해 5월 +77%로 대반전에 성공했다. 중간재는 우리 수출의 30~40%를 차지하는 글로벌 경기민감 품목으로, 중간재가 호조세로 돌아선 것은 향후 우리 수출에 청신호로 해석된다.

반도체 시장의 활황도 우리 수출 전망을 밝게 보는 요인이다. 올해 5월 반도체 수출은 2018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 1~5월 누계 수출액도 2018년에 이어 2위에 해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반도체 장비 수입은 2017~2018년 슈퍼사이클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반도체 장비의 수입이 6개월 가량 반도체 수출을 선행하는 경향을 볼 때, 이후에도 반도체 수출 호조를 기대할 수 있다.

이 같은 수출 호조는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19에 따른 기저효과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5월 수출액이 3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일평균 수출액도 2018년 이후 처음 24억달러를 넘긴 것을 보면 기저효과와 무관하게 5월 수출이 선전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半 부족 등 악재... 완성차, 내수 줄었지만 ‘수출 선방’

(반도체)

현대차, 내수 12% ↓ 수출 68% ↑ 기아, 내수 6% 감소 수출 74% 늘어 르노삼성, XM3영향 수출 321% 급증

국내 완성차 업계가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과 노사 갈등 등 여러 대내외적 어려움으로 판매량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달 국내의 시장에 32만3129대의 완성차를 판매했다. 국내시장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12.4% 감소한 6만2056대, 해외시장에서는 67.7% 증가한 26만1073대의 차량이 각각 판매됐다.

국내시장 판매는 차량용 반도체 품귀로 인한 생산 차질로 악영향을 받았다. 세단은 그랜저 7802대, 아반떼 6697대, 쏘나타 5131대 등 1만9723대가 팔렸다. 레저차량(RV)은 팰리세이드 5040대, 싼타페 3479대, 투싼 2988대 등 1만 5981대가 판매됐다.

포터는 6930대, 스타리아는 3232대

판매를 기록했으며, 중대형 버스 및 트럭은 2815대가 판매됐다. 특히 파비스, 마이티 등 차종의 판매 증가로 중대형 트럭의 판매는 전년 대비 31.2% 늘었다.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는 G80 5584대, GV70 4336대, GV80 1531대 등 1만3031대가 팔렸다.

해외시장 판매는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현대차는 지난달 해외 시장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7% 증가

한 26만1073대를 판매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공장 생산 차질 및 판매실적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가 판매량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기아도 지난달 국내의 시장에서 24만 5994대를 판매했다. 국내시장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6.4% 감소한 4만 7092개, 해외시장에서는 74.2% 증가한 24만 5994대의 차량을 각각 판매했다.

기아도 지난달 반도체 품귀로 인한 생산 차질로 판매량이 감소했다. 지난 달 가장 많이 판매된 차량은 카니발(7219대)로 9개월 연속 기아 월간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 승용 모델은 K5 6034대, K8 5565대, 레이 3608대, K3 3147대 등 총 2만 2077대가 판매했다. 카니발을 포함한 RV 모델은 쏘렌토 6883대, 셀토스 3175대 등 총 2만 1097대가 팔렸다.

르노삼성은 지난달 총 1만348대를 판매, 전년 동기 대비 13.3%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다. 내수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56.2% 감소한 4635대, 수출은 320.7% 증가한 5713대를 각각 나타냈다.

5월 실적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수출 판매량이다. XM3의 5월 수출 물량은 4247대로 XM3 수출이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선적이 이뤄졌다.

XM3는 6월부터 유럽 28개 국가에서 본격적인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선다. 앞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4개 국가에서 올 3월 사전 출시됐으며, 이후 3개월 동안 당초 판매 목표였던 7250대를 넘어 9000대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다.

한국지엠은 지난달 국내의 시장에서 총 1만6428대의 완성차를 판매했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3.7% 감소한 수



지난해 12월 XM3 첫 유럽수출 선적 개시 모습.

차다. 한국지엠은 지난달 내수시장에 전년 동기 대비 23.3% 감소한 4597대, 해외시장에 37.0% 감소한 1만1831대를 각각 판매했다.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에 따른 감소로 인해 전년 동월 대비 실적이 감소했다. 쉐보레 스파크가 1647대 판매되며 한국지엠의 5월 내수 판매를 리드한 가운데, 트레일블레이저는 전년 동월 대비 40.0% 증가한 1338대의 판매고를 올렸다.

쌍용차는 지난달 국내의 시장에 8810대(반조립제품 60대 포함)의 차량을 판매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내수 판매는 전년 동기에 비해 34.6% 감소한 4956대, 수출은 442.1% 증가한 3854대를 각각 나타냈다. 지난 4월 말 상거래 채권단의 납품 재개 결의에 따른 생산활동 재개로 휴업에 따른 적체물량이 해소되며, 판매가 전월 대비 101.1%, 전년 동월 대비 6.3% 각각 증가했다.

출고 적체가 누적된 수출물량 위주의 생산운영으로 내수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34.6% 감소했으나, 전월 대비로는 49.4% 증가하며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더 뉴 렉스턴 스포츠&칸’ 판매는 전월 대비 50% 이상 증가했으며, 4000여대의 미출고 잔량이 남아있다.

/양성문 기자 ysw@

### 온·오프라인 창업

↓ **창업비용 99만원**

**200여개 흥삼브랜드 + 2만여개 인기상품**

복지몰과 웹카다로그를 통해 남녀누구나 평생 판매 수익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사업

**25년 역사 브레인TV 방송국 소유 핫터그룹**

**(주)핫터라이프 T. 070-7204-4515**